

하나로 엮힌 형태의 P 자와 V 자를 보고, 또 그 예쁜 모습으로 미루어보건대 그것이 곧 비르지니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, 그 주머니는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으로 여겨졌지.

이 섬세하고 고결한 아가씨의 편지는 온 가족의 눈물을 자아냈다네. 비르지니의 어머니는 이 가족공동체를 대표하여, 거기 머무르든 돌아오든 좋을 대로 하라는 답을 전하며, 그녀가 떠난 이후 모두가 행복 중에서도 가장 큰 몫의 행복을 잃었고, 특히 자기로서는 슬픔을 달랠 길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주었지.

폴은 비르지니에게 아주 긴 편지를 써서, 정원을 그녀에게 걸맞게 만들 것이라며, 그녀가 바느질로 자기들의 이름을 엮어두었듯이 그 정원에다가 유럽 식물과 아프리카 식물이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네. 폴은 비르지니의 샘에 있는 야자나무에서 완전히 잘 익은 야자열매를 따서 같이 보내주었어. 그러면서 덧불이길, 섬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들의 씨앗은 하나도 놓지 않았으며, 그러면 섬에서 나는 작물을 다시 보고 싶어서라도 하루빨리 돌아올 결심을 할 수 있으리라고 했지. 폴은 비르지니에게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가능한 한 빨리 들어주기를, 아니, 아무래도 그녀와 멀리 떨어진 이후로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으니,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최대한 빨리 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네.